
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	
		배포일시	2020. 6. 9.(화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물류산업과	·과장 이진철, 행정사무관 남승헌, 주무관 박권필 ·☎ (044) 201-4016, 4021	
보 도 일 시		2020년 6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6. 9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국토부, 안심택배 위한 현장 방역관리 강화

### -9일 대전 택배터미널 현장방역 점검...유관기관 협력 기반 지속 점검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손명수 2차관은 6월 9일 대전 소재 택배터미널 현장을 찾아 방역 활동을 참관하여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.
- 이에, 택배터미널 방역책임자는 “매일 1회 이상 작업장, 안전모 등 장비 소독, 출근자와 근무자에 대한 수시 발열체크, 근로자 선별 문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식당 칸막이 설치, 외부출입자 통제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
-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택배현장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 방역 지침을 마련해 작업장에서 2m 거리유지, 작업장 환기, 택배차량 운전대 소독 등을 실천하도록 물류시설 등에 대한 생활 방역지침을 업계에 전파한 바 있다.

○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확진자가 발생했던 온라인 유통 회사의 수도권 소재 물류센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산자부,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했다.

- 작업장·식당 등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, 장비소독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, 현장시정 및 개선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택배터미널 외에도 각 부처별로 관리 중인 유통물류센터, 항만창고, 축산물 창고 등에 대한 시설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한편,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관내 물류시설에 대해 6월 11일까지 점검토록 하고 있다.

□ 손 차관은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, 국민이 안심하고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을 관리·감독해 줄 것”을 거듭 강조했다.

○ 또한, 최근 수도권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택배업체·영업점 택배기사 등 현장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했다.

□ 향후, 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, 해양수산부 등 물류시설 소관 부처 및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물류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남승헌 사무관(☎ 044-201-4021),  
박권필 주무관(☎ 044-201-40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